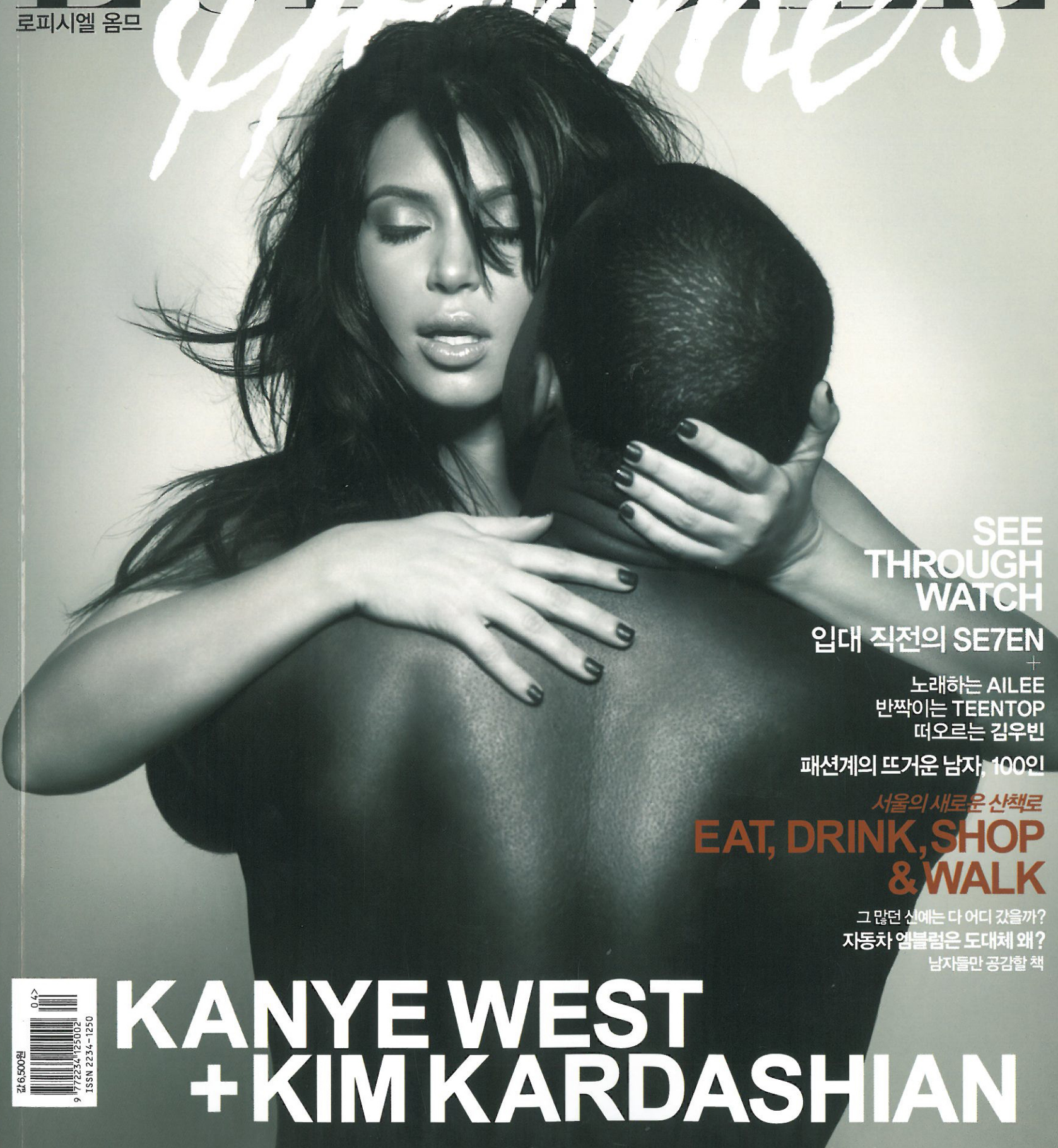


L'OFFICIEL

Hommes

로피시엘 옴므



SEE
THROUGH
WATCH

입대 직전의 SE7EN

+
노래하는 AILEE
반짝이는 TEENTOP
떠오르는 김우빈

패션계의 뜨거운 남자, 100인

서울의 새로운 산책로

EAT, DRINK, SHOP
& WALK

그 많던 신에는 다 어디 갔을까?
자동차 앰블럼은 도대체 왜?
남자들만 공감할 책



KANYE WEST + KIM KARDASH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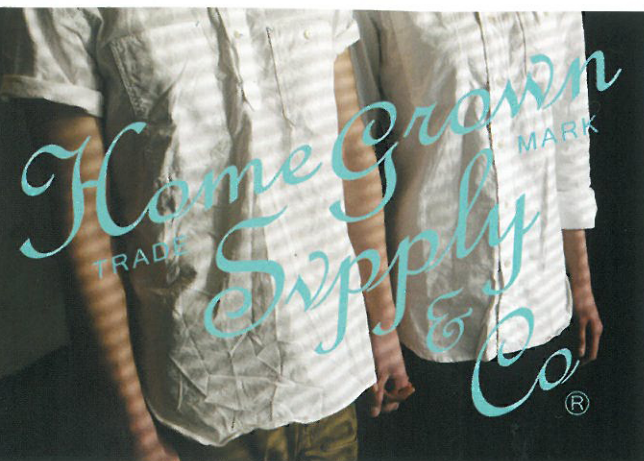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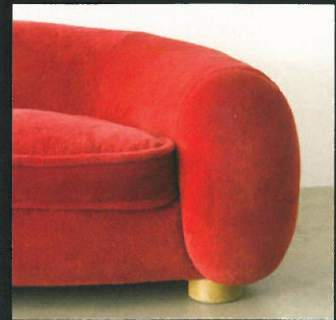
THE NEW 501 WORLD



청춘 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리바이스, 제임스 딘, 핑크 티셔츠, 반항의 상징, 아메리칸 컬처가 떠오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것, 리바이스를 입은 건강하고 남자다운 청년들. 뭉탈까, 리바이스는 시간이 흘러 23세기가 된다 해도 이와 같을 것이다. 역사는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기억해두고 우리는 과거의 산물을 질로 삼아 성장해나가기까, 희망찬 얘기다. 모름지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마음껏 해도 좋을 시기다. 봄이 왔고 리바이스가 501을 만든 지 140주년이 되었으므로, 리바이스 501은 타협하지 않는 전통성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제조 기법으로 탄생해 시대와 함께 성장하며 지금까지 진화해왔다. 올해 리바이스는 140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논데넌 소재의 슬림 피트 501을 선보인다. 이제껏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리바이스의 아이콘이 탄생하는 것이다. 모던해진 실루엣과 슈링크 투 피트 원단으로 가볍고 편안해졌으며 미네랄 레드, 초크 블루, 아이비 그린, 트루 치노 등 컬러를 덧입혀 21세기적 청춘의 봄날을 완성해줄 예정이다. 소녀시대와 사이니가 설계한 아방가르드한 컬러 데넌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우주인 140주년의 헤리티지를 담아낸 컬러풀한 뉴 501은 과거의 501의 영광을 신선하게 구현해냈다. EDITOR 연시우

CURVE MASTER

전방위 아티스트라는 건 최근 들어 쓰는 말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전에도 있었다. 장 로이에는 1930년대 파리에서 가구 디자이너, 텍스타일 디자이너이자 실내건축 디자이너로도 활동한 인물이다. 그런 장 로이에는 가구가 국내에 처음 소개되고 있다. 매해 디자인 전시를 통해 장 프루베(2005)와 조지 나카시마(2006) 등의 작품을 국내에 소개해온 국제갤러리를 통해서다. 국내 첫 전시인 만큼 국제갤러리는 그의 대표작을 소개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두툼한 플러시 천 사용과 곡선을 살린 안락한 형태가 눈에 띄는 북극곰 시리즈가 바로 그것. 또한 전시에는 19세기 말 미술 양식인 아르누보에 영향을 받은 덩쿨 시리즈가 함께 소개된다. 화려하고 다양한 직물과 패턴, 원목과 금속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보다 진보적인 디자인을 제안한 장 로이에,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의 세계를 완성한 장 로이에, 그의 작품을 직접 경험하려면 서둘러 삼청동 국제갤러리를 찾은 것. 3월 31일까지. EDITOR 이선영



WOW! HOME GROWN SUPPLY & CO.

우리들의 뉴 히어로! 새로운 시대의 주인, 안태옥으로부터 대학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그는 스펙테이터를 포함한 네버 그린 스토어, 새로운 레이블인 홈 그로운 서플라이 등 안태옥이라는 브랜드의 챔피언 전개에 관한 계획을 이미 스무 살 때 세웠고, 심지어 선배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 있다고 한다. 자네 9시가 다 되어서야 뭘 먹을지를 결정하는 나로서는 안태옥이라는 괴물 같은 천재의 행보가 신기할 따름이다. 아무튼 그는 매 시즌 메가톤급 브랜드로 성장하는 스펙테이터와 그를 기반으로 작년 스펙테이터, MNW, 블랭크코 등을 소개하는 편집 매장 네버 그린 스토어를 오픈했다. 그리고 드디어 4월, 그는 '홈 그로운 서플라이 & 코'라는 네버 그린 스토어의 PB 브랜드를 론칭했다. 안태옥은 '홈'이라는 단어를 베이스로 남녀 의류 라인과 더불어 가구, 주방 용품, 인테리어 제품 등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마도 가구와 주방 용품이 나오려면 15년쯤 걸릴 테지만(빠르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제품일 것.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할 것, 누구에게나 어울릴 것, 관리가 쉽고 편안할 것, 품질 자체가 디자인을 대변할 것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추구하는 홈 그로운 서플라이는 그야말로 퀄리티의 대왕. 안태옥의 디자인 철학을 고스란히 반영한 새로운 베이스의 룰이 될 것 같다. 홈 그로운 서플라이 & 코는 네버 그린 스토어와 네버 그린 스토어의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나는 이미 하나 샀다. EDITOR 연시우

